

# 공초 없는 전자담배, 산불 예방 열쇠 되나

## ‘역대급’ 올진 산불...당국, 담배공초 유발 추정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 15% 공초 원인” 조사도

올진 산불이 3월13일 오전 9시경 주불이 잡히면서 진화됐다.

같은 달 4일 오전 11시17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154 일원에서 발생한 이 불은 역대 최장 기간인 총 9일, 약 213시간 동안 울진 지역 4개 읍·면, 강원 삼척 지역 2개 읍·면을 휩쓸었다.

그 결과, 축구장(0.714ha) 2만9304개 면적과 맞먹는 2만923ha(울진 1만8463ha·삼척 2460ha)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 소, 공장과 창고 154개 소, 종교 시설 등 31개 소 등 총 643개 소에 달하는 시설물이 피해를 봤다. 이재민 337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진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 화재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데 안도해야 할 정도다.

### ◆‘역대급’ 올진 산불도 원인은 담배공초?

산림 당국과 경찰은 지나던 차 안에서 던진 담배공초가 이번 화재의 일인자로 추정하고 있다. 발화 지점이 차로 주변인 데 주목해서다.

공초가 또다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불을 붙여 피우는 ‘일반 담배’ ‘연초 담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6일은 명절 ‘한식’이다. 조상 묘소를 돌보기 위해 사람들이 산을 출입하는 일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는 대

기는 건조하고, 바람은 강해 산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공교롭게도 5일은 산림 녹화를 강조하는 ‘식목일’이다.

2020년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흥우형,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규 교수의 논문(‘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약 30%가 공초 탓에 발생했다. 전체 화재 건수의 15%에 해당할 정도다.

그레도 공초가 그간 일으킨 화재 피해 규모는 건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논문은 담배공초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인적 피해, 소방 비용 등 담배 갑당 화재에 대한 외부 비용을 20.58원으로 꼽았다.

하지만 자칫 담배공초가 유발한 화재가 크게 번진다면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다 이번 산불이 발발했다. 민관군이 합심해 필사적으로 저지한 덕에 한울원전, 강원 LNG 가스 기지 등 국가 기간 시설과 ‘천년고찰’ 불영사,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으나 ‘대재앙’은 겨우 한 뼘 거리에 있었다.

### ◆금연, 좋은 만큼 어려운 실화 예방법

실화의 주된 요인이 공초인 만큼 ‘금연’은 이를 예방할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건강상 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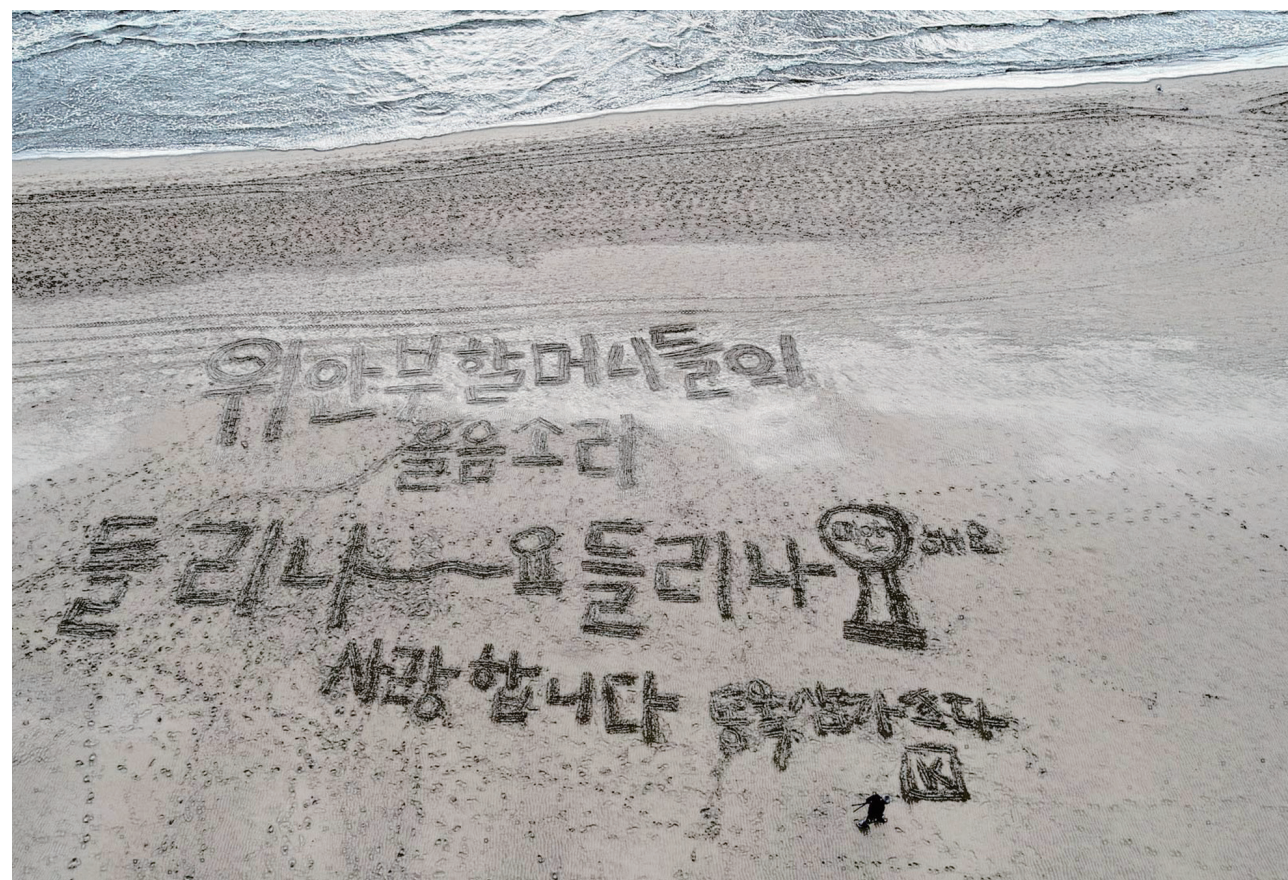
성 지적에도 흡연 인구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이유로 금연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초를 만들어내지 않는 ‘전자담배’가 흡연자를 잠재적인 ‘실화범’으로 여기는 일각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전자담배는 이미 수많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건강상 이유’(유해물질 발생량)와 ‘사회적 이유’(냄새와 2차 흡연 문제) 등에서 일반담배보다 압도적으로 자유롭다.

이제는 “화재 유발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로 ‘안전상 이유’에서도 일반담배를 올리게 됐다.

논문은 화재 위험성을 비롯해 연기·냄새에 따른 비흡연자의 건강상·정서상 피해 등을 모두 흡연의 외부 비용으로 추산할 때 전자담배의 그것이 일반담배의 76%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 김동욱 서예가, 일본 망언 규탄 퍼포먼스

4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 백사장에서 독도 수호 결사대 대장 김동욱 서예가가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문화 예술로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퍼포먼스 글귀는 “우연부 할머니들의 울음소리 들려나오 들려나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이다.

4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 백사장에서 독도 수호 결사대 대장 김동욱 서예가가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문화 예술로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퍼포먼스 글귀는 “우연부 할머니들의 울음소리 들려나오 들려나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이다.

## 전국 중환자실 가동 67.3%...재택치료 152만명

### 재택치료 환자 일주일만에 31만명 ↓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67.3%로 전날보다 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169만명대에서 152만명대로 감소했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2825개 중 1902개에 환자가 입원해 병상 가동률은 67.3%다.

전날 64.5%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64.1%, 비수도권은 75.5%로 비수도권 병상 여

력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병상 가동률이 80%이면 사실상의 포화 상태로 보고, 70%도 위험한 수준이다.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5359개 중 3621개(67.6%)가 사용 중이다. 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1.5%다.

재택치료가 힘든 이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5%로 1만5269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확진 후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지난해 12월29일 이후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52만 7000명으로 전날(169만1888명)보다 16만4888명 줄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183만7291명보다는 31만291명 감소했다. 최근 이어진 확진자 수 감소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새로 재택치료를 배정된 환자는 14만6968명이다. 재택치료자 가운데 14만4454명(9.5%)이 60세 이상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이 다.

김재환기자

## 정부, “코로나 고위험군 우선치료 ‘패스트트랙’ 도입가능성 검토 중”

정부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으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신속항원검사(RAT)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의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추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대면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현행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확진 시 최우선적으로 검사·치료를 실시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반장은 “패스트트랙은 의사체제와 진료체계가 연동돼 가야하는 부분”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향후 RAT 검사의 (양성)인정 지속 여부나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대상자 문제 등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어 여기에서 패스트트랙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고위험군의 조기진단과 신속한 처방”이라며 “현재도 패스트트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를 짜고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임상 의료체제로 계속해서 전환시킬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고위험군을 얼마나 빨리 진단하고 치료제를 투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이고 목표”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내 대해서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과 관계없이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선욱기자



### 광양경찰, 신학기 학교 내 성범죄 예방활동 집중 전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불법촬영·유포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화장실 및 탈의실 등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 나주경찰, 이통장연합회 초청 치안설명회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3월 30일 경찰서 4층 이화마루(대회의실)에서 나주시 이통장연합회와 함께 ‘안전한 나주 만들기,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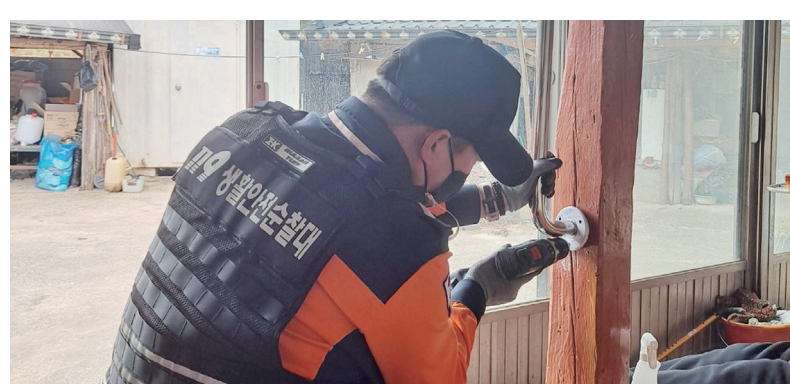
### 순천경찰,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간담회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에서는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합동진단팀’을 구성하고, 순천 상공회의소에서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 광주 남부소방, 청명·한식 기간 산림화재 예방 총력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경자)는 청명·한식을 맞아 4월 4일부터 7일까지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순소방 생활안전순찰대, 화재 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3월 30일 도암면 안성마을을 방문하여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암장 4개소 개방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오는 4월 4일 시루봉 등 월출산 국립공원 내 암장 4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